

OPINION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특별기고

전남발전과 대학혁신, 동반성장의 막이 오른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



지방소멸, 낯선 단어가 아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전통적인 수도권 일극화 지속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산업·문화 측면에서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이 처한 위기 중 대표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고 수도권 대학 집중이 지속되면서, 정원 미달로 문을 닫는 지역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8세~21세 대학 학령인구 통계를 보면 1992년 360만명에서 2024년 190만명으로 절반이 감소되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문을 닫은 대학이 22개이다. 지역의 핵심 인적·물적 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해당 소재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기에 지역대학의 위축은 곧바로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학과 지역, 지역과 대학은 생존과 번영을 함께 하는 한 몸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가 올해 본격 시작된다. RISE는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집권적 접근방식을 버리고,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함께 동반성장

을 실현해 가는 체계이다. 지역-대학의 공동 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대학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도는 이 패러다임 전환을 기회로 보고 전남형 RISE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RISE 전담부서인 대학정책과를 신설하고 교육부 RISE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남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지닌 RISE 계획 수립과 조기안착을 위해 40여 차례에 걸쳐 대학·교육계·연구기관·시군·부처 등과 논의해왔다.

올해 전남도의 RISE는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GRAND 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전남-대학 동반성장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5년간 총 30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며 정주하는, 지속가능한 전남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Global)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양성, (Regional) 지역 산업혁신 챌린지, (Advanced) 전문직업평생교육 허브센터, (Nexus) 초연결 공유캠퍼스, (Dynamic)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 등 5대 GRAND프로젝트와 그 이하 15개 단위과제를 대학, 혁신·연구기관, 기업, 시군 등과 협력하여 실행한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과 에너지·우주항공·해상풍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미래산업, 전국 최고의 농수산업과 관광문화자원 등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과 연계한 고등교육과정 혁신으로 전남의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쁘게도 최근 도내 대표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가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대학에 지정되어 혁신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도내 17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로 전국 최다 선정된 것 또한 전남형 RISE 성공에 힘이 될 것이다.

하나, 지방에 기회가 될 RISE에도 아쉬운 면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25년 교육부 예산 105조 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약 16조원으로 15%에 불과하며, OECD 국가들이 GDP의 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0.7% 가량으로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AI로 대표되는 대격변의 시대,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대학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 핵심인 RISE 예산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인 RISE 국고 배정 기준 문제이다. 올해 RISE 국고 지원액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배정했다. 이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한다. 그동안 국가 투자의 수도권 치중으로 지역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 자율성을 준 RISE 사업이, 역설적으로 지역 격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도는 RISE 성공을 위해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비 도비 투자를 6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정부의 의지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당장이라도 지역혁신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해 본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동행'의 소중함과 지혜를 담은 말이다 하겠다. RISE의 가치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원히 RISE하는 GRAND 전남을 향해, 전남도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도민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고

중국 경제 전망, 양회가 내놓은 메시지?

구칭치

주광주중국총영사



최근, 중국 '양회(兩會)'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두 개의 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매년 3월 초, 전국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와 2000여 명의 정협 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고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며 구체적 방향을 모색한다. 양회는 중국식 민주 정치의 생생한 구현이다.

'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출하는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하는 것에 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는 과거 1년간의 정부 업무 성과를 총괄하고 본 연도의 정책 로드맵을 세밀하게 계획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난 한 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며 국내총생산은 134.9조 위안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녹색적인 전환은 더욱 굳건해져 신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생산량은 1300만 대를 돌파했고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은 3.7억 kW에 이르렀으며 연간 대기질 우수 일수 비율은 87.2%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의 혁신적인 요소가 더욱 늘어나 산업용 우주항공, 베이더우(北斗) 항법 위성 시스템의 응용, 신에너지 저장 등 신중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에서 약 10%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올해도 약 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서비스업 종합개발 시범사업 확대, 인터넷 문화 분야의 체계적인 개방, 통신·의료·교육 등 분야의 시범개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

수출입상품박람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세계디지털무역박람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 등과 같은 주요 전시회를 수준 높게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의 대규모 응용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상업용 우주항공, 저고도 경제, 심해과 학기술 등 신중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추진하며 바이오 제조, 양자과학기술, 체화형 인공지능, 6G 등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소비를 크게 진작시키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내수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과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주로 전자제품을 지칭함)을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편성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행동 방안'을 별도로 발표해 8대 행동과 30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약 134만 대, 1급 에너지 효율 기준 제품 판매액은 24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36%로 증가했고, 단가 6000위안 이하의 휴대 전화 시장 판매량은 약 3300만 대와 판매액 860억 위안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9%, 서비스업 생산수는 5.6%,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4.0%, 수출액은 3.4%로 증가했으며 전국도시실업률 평균 5.3%로 집계됐다. 이러한 일련의 수치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강인성을 띠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깊이 융합

되어 있고 협력 전망도 매우 밝다. 지난 해, 중한 무역은 역풍 속에서도 328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은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1~2월 중한 무역액은 467억 달러(대한국 수출 206억 달러, 수입 26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월 한국의 대중국 실질 투자액은 104.3% 급증했다. 양국 경제 협력의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인공지능 허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인공지능 산업도 급성장하여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전라남도는 산업 인프라가 탄탄하고 대중 경제 협력이 활발하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이미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은 다년간 전라남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오늘날의 세계는 변화와 혼란이 얽혀 있고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인류의 운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 한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 물의 띠만큼 좁은 강)의 가까운 이웃이며 수천년 간의 역사 문화를 함께 해왔다. 역사와 문화의 연원과 현실적 협력의 수요는 양국의 운명을 단단히 묶고 있으며 중한 양국이 마음을 합쳐 함께 협력해야만 상생할 수 있다. 올해와 내년 한중 양국이 APEC 회의를 잇달아 주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한다는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향후 양국 중요한 고위급 교류와 양자 관계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속담에 '친척은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친구는 자주 만나야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의 중국 여행 열풍을 일으켰다. 호남 지역 친구들도 중국에 더 많이 가서 직접 보고 중국 사회의 발전을 몸소 느끼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우호 협력을 기여해주길 희망한다.

지도자인 이용희 수석코치를 비롯해 신오름 코치 등을 영입하며 새로운 코치진 구성을 마쳤다. 또 흥극생영으로부터 세터 이원정을 데려왔고, FA기간에는 11시즌 간 리그 경력과 국가대표 경력 등을 보유한 베테랑 리베로 한다혜를 영입했다. 특히 아시아쿼터 트리아아웃에서는 최장신(196cm) 미들블로커 장 위(29·중국)를 품었다. 외국인 선수로는 바르바라 자비치를 영입했지만, 그의 부상과 부진으로 재빠르게 교체하는 결단까지 보여줬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을 마무리하며 "승수를 챙기면서 발전했던 모습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뒷심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기울었던 경기를 여러 차례 역전해 냈다. 다음 시즌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언급했다.

장단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AI페퍼스가 다음 시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사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성공하길

호남권의 교통과 경제를 광역화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본격 시작됐다. 광주·전남·전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호남권 경제 발전을 공동 도모하기 위해 '호남권 경제동맹'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을 전세계에 알릴 2036 하계올림픽(전북 전주)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무엇보다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 분야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원 공동 개발, 그리고 농생명 관련 기관 집적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 공동 대응기로 한 것이다.

또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광주송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이르기까지는 지난해 열린 호남권정책협의회의 공이 컸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7년만에 부활한 협의회에서 예전처럼 전 분야에 걸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 호남권 경제·산업분야에 필요한 협력과제를 세밀하게 다뤘고 시·도간 상호협력도 다 잡았다. 이후 실무협의회 등을 열고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공동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하며 이번 협약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첫발을 떼고 연합추진단을 구성해 경제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호남권 경제동맹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대형 산불 심각...예방에 만전 기해야

산불이 정말 심각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대형 산불로까지 확산돼 사나흘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진화되지 않고 있고 지난 22일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에서 난 산불도 꺼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 사망 4명에 중상 5명, 경상 4명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는 불이 진화되지 않아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큰 불길에 잡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거나 선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산불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여름같은 고온, 강풍 등이 겹쳐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이미 경남·북 지역에는 연일 비가 전년에 비해 적게 내리 건조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까지 선보이며 산불이 났고 강풍까지 불면서 진압할 수 없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도 '이상 날씨'의 예외 지역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1~23일사이 진도군, 광양시, 보성군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8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모두 진화됐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오후 호남·영남·충청지역 산불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나머지 지역은 한 단계 아래인 '경계'수준으로 발령했다

문제는 이같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이 내다보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올 봄 산불은 천재지변급 '재난'이라는 얘기다.

회제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시·도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수첩

AI페퍼스의 다음 시즌 기대된다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최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2024-2025시즌 V리그가 막을 내렸다.

순위 결과는 4년 연속 최하위다. 하지만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였다. 이는 기록이 증명한다. AI페퍼스는 지난 2021-2022시즌 V리그에 합류한 이후 3승(28패·승점 11), 2022-2023시즌 5승(31패·승점 14),

2023-2024시즌 5승(31패·승점 17)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는 전반기에만 구단 역대 최다승(6승)과 승점(19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고, 후반기에도 5승을 추가하면서 11승 25패 승점 35로 시즌을 마감했다. 특히 후반기에는 다양한 금자탑을 쌓았다.

1월에는 IBK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을 차례로 꺾으면서 창단 첫 3연승을 따냈다. 올 시즌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승수는 5라운드까 채 끝나기도 전에 달성했고, 역대 최초 전 구단 상대 승리 또한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창단 4년차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이룬 게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AI페퍼스는 올 시즌 제 4대 사령관으로 장소연 감독을 영입했다. 이후 베테랑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가)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